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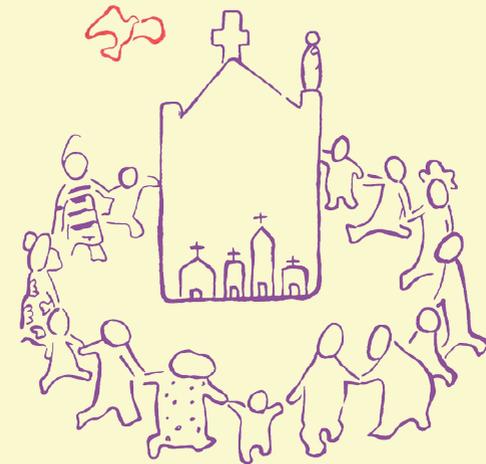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 )번 (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2. 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1] 주님초대하기
-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 [6] 마침기도

###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 )번 (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사순 제2주일(3월 8일)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마태 17,1-9)



**예수의 영광스런 모습**

-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게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마태 17,2-3)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고, 엘리야는 백성들을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하느님께로 데려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 이 일을 계속하십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90장 “십자가에 가까이” 1-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해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 무렵 1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2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게졌다. 3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4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5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6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7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8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마태 17,4)

하느님을 위해 최근에 한 것이나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태 17,5)

우리는 언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 마음에 드는 자녀라고 느낍니까?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변모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산에 초막을 짓고 그 자리에 하느님 나라가 도래한 기쁨을 하려하지만, 하느님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말을 더 듣도록 이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는 세례의 장면을 연상시키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고통받는 종으로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드님, 마음에 드는 아드님으로서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샤바즈 바티는 파키스탄 최초의 소수민족부 장관이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그는 유일한 그리스도교인 장관으로서, 신성모독법 폐지 등 소수민족과 종교인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3

월 2일, 그는 정체 모를 괴한들에게 총격을 받고 43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샤바즈 바티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정확한 시간은 몰랐을 지라도, 자신이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알았습니다. 인구 95%가 이슬람교 신자인 이슬람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성모독법 폐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살해당할 줄 알았기에, 그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샤바즈 바티는 고통의 길을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택한 사람입니다. 샤바즈 바티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고통의 길을 알면서도 따라가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안락함에 머물지 않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고자 합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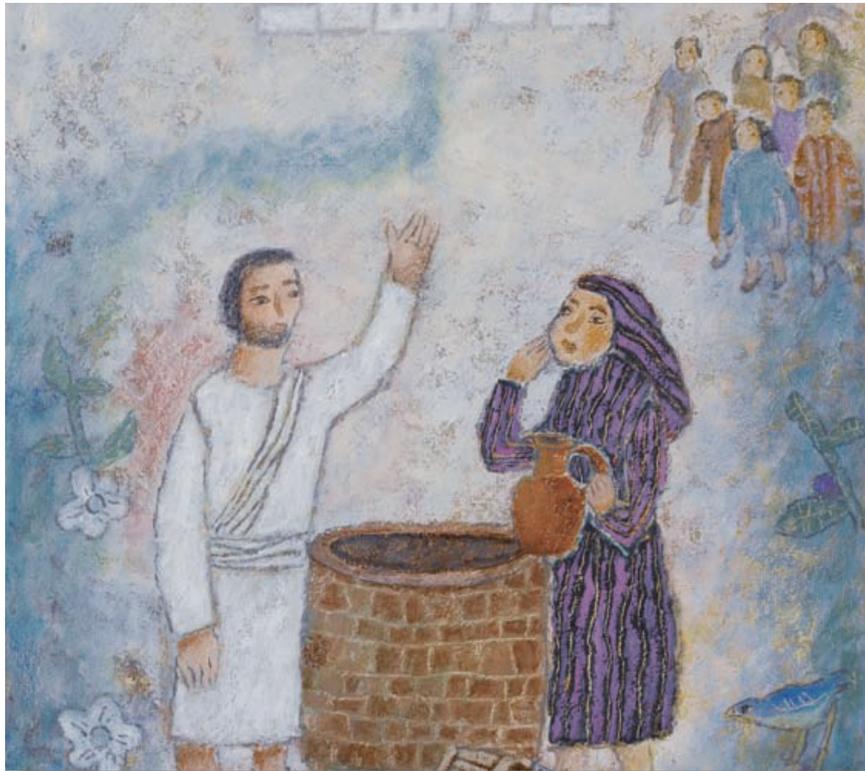
###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90장 “십자가에 가까이” 3-4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사순 제3주일(3월 15일) 쏟아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 (요한 4,7-15)



## 야곱의 우물가

-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한 4,14)

이방인의 여인이 구세주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에게 영원히 샘솟는 물을 주기 위해 먼 길을 달려 오셨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 죄를 씻어 주는 생수이고, 끊임없이 샘솟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성령이십니다.

##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18장 “주여 당신 종이 여기”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해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요한 복음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7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9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대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10 예수님께서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1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12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13 예수님께서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15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요한 4,7)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요한 4,15)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청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마주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낮설음에서 시작하여 파격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것도 남자와 여자라는 틀과 선이 무너지고, 천 년 동안 마르지 않았던 야곱의 우물가에서 마실 물을 찾던 예수님께 오 히려 생명의 물을 청하는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청하는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아마도 단순한 호기심으로 물을 청했다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자기 삶의 갈증을 예수님을 통해 해소하려 한 것이 아닌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틀과 선을 깨뜨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삶의 갈증을 해소할 생명의 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움켜쥐고 놓지 않는, 절대적이라 여기고 살던 우리 삶의 많은 기준들이 허물어지면 하느님 안에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갈증들을 하나 둘씩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71장 “강물처럼 흐르는 사랑” 1-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본당을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

-회원동본당 12구역장 윤정미(카타리나)-

아름다운 무학산 아래 공기 맑은 곳, 어느 곳에도 잘 없는 그 유명한 회원 2동 팔거리에 회원동본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회원동본당 12구역 반원들은 이사를 가거나, 집 가까이에 다른 본당이 있어도 오랜 기간 이어온 끈끈한 정 때문인지 먼 걸음 마다 않고 꼬박꼬박 제 등지 찾아오듯 본당으로 옵니다.

12구역 반원들은 시외에 계신 분도 있고 시내에서 멀리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구역이 광범위한지라 각 가정을 방문하는 일은 생각지도 못하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여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하려는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교구 내 성지는 물론이고 타 교구 성지순례도 다녀왔습니다. 그 덕분인지 서로 간의 우애와 친목이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소공동체 모임을 하는 날이면 복음나누기와 생명말씀 살기 나눔이 풍성하여 기록하기가 바쁩니다. 서로의 나눔에 감동받아 목이 메여 울먹이다 결국은 모두가 우는 때도 있습니다. 선교 체험을 나눌 땐 서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엔 나누기를 주저하시고 경청만 하시다가 요즘은 복음나누기에 한 번씩 동참합니다.

그렇듯 나눔이 풍성한 것은 말씀에 대한 사랑과 실천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원들의 열심한 신앙생활은 얼굴 표정에서도 드러납니다. 언제나 환한 미소로 함께 해주시는 12구역 반원과 함께 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이 친교와 화합이 본당 공동체가 성장해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려 봅니다.





•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소공동체 선교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

#### 2. 소공동체 선교활동

##### 1) 예비신자들을 위한 선교활동

예비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공동체 선교활동은 선교분과에서 할 수 있는 활동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함께 호흡하는 이웃은 접근이 쉽고 생활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속감, 유대감 등 본당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많은 부분을 소공동체에서는 체험할 수 있다.

소공동체는 입교식부터 신속하게 명단을 받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리반 동행은 물론 본당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적당한 날짜를 정해 소공동체에서 환영식을 마련해 자연스럽게 모임을 알려주며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2) 냉담자들을 위한 선교활동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냉담신자 문제는 일시적 선교활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냉담신자 회두활동은 많은 인내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꾸준한 방문과 교회 유인물을 통한 친교와 끊임없는 기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소공동체의 역할은 이들을 분류하여 효과적인 방문자를 선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선교분과나 성령기도회, 레지오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공동체에서 이러한 진행과정을 숙지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3) 전입교우들을 위한 선교활동

짚은 이사에 따른 냉담신자의 증가는 현대 사회현상에서 비롯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활동을 하다 보면 숨어 지내는 전입교우들을 의외로 많이 만날 수가 있다. 전입교우들을 대상으로 한 소공동체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고 그들이 본당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단체에 가입케 하여 본당에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 주어야 한다.

-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행하는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2단계 지도자용 지침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 ■ 소공동체장 연수

지 구	일 시	장 소
마산지구	3월 26일(목) 오후 1시~4시	월영성당
창원지구	4월 2일(목) 오후 1시~4시	사파동성당
진주지구	4월 16일(목) 오후 1시~4시	옥봉동성당
거제지구	4월 23일(화) 오후 1시~4시	고현성당

- 참가비 : 1인 5,000원
- 준비물 : 필기도구, 개인컵
- 신 청 : 교구 공문을 참조하여 본당을 통해 신청
- 문 의 : 055)249-7022~3